

## 일루리곤에 복음이 편만하기 까지

지난해 가을 겨울을 지나 어느덧 새해가 되었네요. 동역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하며 저희들의 지난시간 주께서 동행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그 동안의 일들

이 번 기도편지를 쓰면서 놀라고 감사했던 것은 지난번 기도편지에 나왔던 기도제목이 응답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쿠키스 청소년아카데미(vesa e rinise)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단체가 등록되고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청소년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하루가 다르게 꾸며져가고 있는데, 너무 빠르게 일이 진행되어 주님께서 급하게 일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부산세계로병원의료팀과 함께 쿠키스아카데미에서 첫 개시로 진료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쿠키스 뿐만 아니라 코소보에 계신 분들도 쉽게 올 수 있어 복음의 귀한 접촉점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스 모퉁이돌 교회와 가나안교회의 청소년연합 예배를 올해 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최조영 선교사가 이들 중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마음이 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쿠키스 아카데미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young life 청소년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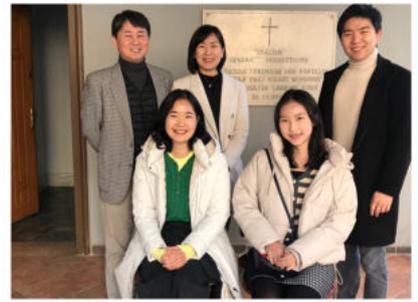


와 협력하여 발칸반도의 청소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합니다. 주님의 비전이기에 주께서 함께 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저희 가정도 작은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외에 저희 가정은 지난해 겨울 김장코디로서 알바니아, 코소보, 독일 외 4개 나라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김장축제를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개최한 예수제자운동 유학생 수련회에서 아들 최기성이 통역팀으로, 홍정희 선교사는 상담팀으로, 최조영 선교사는 프로그램과 의료팀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한교회 고등부 비전 트립팀과 홍정희 선교사 여동생과 조카의 방문이 겹쳐서 더 의미있고 감사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영 선교사는 프로그램과 의료팀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한교회 고등부 비전 트립팀과 홍정희 선교사 여동생과 조카의 방문이 겹쳐서 더 의미있고 감사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1월말에는 나흘간 한국과 알바니아 정부간 재생에너지 개발협력 회의가 있었는데 최조영 선교사가 알바니아 통역으로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으로 좋은 열매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 앞으로의 일들

너무나 감사한 일은 가나안교회 리더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공동체를 자원하여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벽토그 꾸미기, 어린이 모임, 청소년 모임, 성경읽기 모임, 수학 수업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심을 알기에 더욱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올해 가나안교회의 표어를 “그리스도께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조영 선교사가 2월11일 부터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엘톤 엔드리나 부부와의 일대일 양육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반응하는 부부를 보며 저희부부도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부부는 알바니아에서 주시는 열매에 깊은 감사와 함께 한국의 부모님들의 근황에 깊은 시름도 있습니다. 홍정희 선교사 아버님은 폐암 말기이신데 방사선 치료 등으로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숨이 차시는 증상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최조영 선교사의 어머니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서 전화만 하면 우십니다. 저희가 이곳의 상황 상 9월에 안식일을 들어 가려고 했으나 최대한 일찍 7월에 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부모님 옆을 좀 더 잘 지켜드리는 시간들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부탁드려요 .

### 기도제목

- 1.쿠커스 청소년아카데미를 통해 예수제자들이 훈련되어지고 발칸반도로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도록 .신실한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도록 .
- 2.가나안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 3.티라나 살롬병원과 쿠커스 아카데미 진료가 복음의 좋은 접착점이되고,매 주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 3.아들 최기성 독일병원취직감사와 3월 11일 독일 의사시험 넉넉히 합격할 수 있도록.
- 4.홍정희선교사 아버님 통증 완화와 생명을 연장해 주시도록.
- 5.최조영선교사 어머니 마음 평안과 힘을 주시도록.

쿠커스<청소년 아카데미 & 진료소>를 위한 후원계좌

\*하나은행 303-04-00001-792 예금주:GMP 청소년아카데미

\*국민은행 69509085884888 최조영(아카데미사역)기독교대한성결교회;최초 헌금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